

청도의 전적 인쇄 문화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Traditional Publishing Culture in
Cheongdo Area in Gyeongsang Provinces

임 기 영 (Lim, Ke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책판 목록 및 읍지 수록 서적 |
| 2. 청도의 역사 및 출판문화사적
배경 | 4.1 책판 목록 수록 서적 |
| 2.1 역사 및 지리적 환경 | 4.2 읍지 수록 서적 |
| 2.2 출판문화사적 배경 | 5. 간행 서적과 서지적 특성 |
| 3. 서적의 간행 및 유통 기록 | 5.1 간행 서적 |
| 3.1 삼국 및 고려 시대 | 5.2 서지적 특성 |
| 3.2 조선시대 | 6. 맺음말 |
|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는 경상도 지역의 郡 단위 출판문화 활동을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그 중 일찍부터 선사 문명이 시작되었고, 고려시대 이후 인근의 저명한 사찰들로 인하여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장이자, 조선조 유교와 예학이 함께 발달하였던 청도 지역의 인쇄 문화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청도 지역에서는 고려 후기 雲門寺와 湧泉寺 일대를 중심으로 一然이 주도한 간행 사업의 주된 근거지가 되는 등 당시 이미 사찰 출판의 분위기가 고무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간행 사례는 15세기 초부터 나타난다. 이후 16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주체의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지역 출판의 양상은 조선 초기 淸道官이 주도한 관판본의 판각으로 시작하여, 16-17세기에는 雲門寺와 水巖寺, 磻川寺의 3개 사찰의 불서 간행으로 옮겨가는 형세였다. 이 시기 지역의 3개 사찰에서 이루어진 불경 출판은 청도 지역 간행 사업에서 가장 부각되는 특징으로 보인다. 이후 18-19세기에는 사찰의 불서 간행 사업은 지속되었고, 더불어 간행의 주체는 개인의 私家 출판을 비롯하여 書院이나 齋舍, 鄕校와 樓亭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지역 출판의 수단에서는 목판에 의한 판각이 선호되어, 전체 간행 종수 81종 가운데 목활자를 통한 인쇄는 4종에 불과하였다.

要語: 淸道, 道州, 鰲山, 목판, 목판 인쇄, 책판 목록, 읍지, 사찰, 향교, 서원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psycholo@hanmail.net)

접수일: 2011년 12월 2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4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culture of traditional printing in Cheongdo(淸道) area in Gyeongsang province. It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the study on the publishing trend and activities of Gyeongsang provi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Cheongdo area was already active in printing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with the two leading Buddhist temples' activities. They are Unmun(雲門) and Youngcheon(湧泉) temples, where Buddhist monk Ilyeon(一然) led active publishing activities. But, the existing old book evidences the printing activities of this area only in the early 15th century. Later between the 16th to the 20th centuries various books were published in diverse places. Local publishing began with the engraving of government publications led by Cheongdo-dw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moved to the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by Unmun(雲門) temple, Suam(水巖) temple, and Jeogcheon(積川) temple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the publishers of books in this area were expanded to include governmental offices, Buddhist temples, Hyanggyo(鄕校), Seowon(書院), Sawoo(祠宇), Jaesil(齋室), pavilions and so forth, while the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were still active in the above mentioned temples. Meanwhile, since woodblock printing was preferred in this area, only four out of 81 titles published in this area were printed with wooden movable types.

Key words: Cheongdo(淸道), Doju(道州), Osan(鰲山), Woodblock, Woodblock Printing, Catalog of woodblocks(冊板目錄), Town chronicle(邑誌), Buddhist Temple, Hyanggyo(鄕校), Seowon(書院)

1. 머리말

이 연구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가야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던 청도 지역의 전적 인쇄문화에 대하여 다루었다. 청도는 고대 문화가 발달하여 선사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있고, 영남 지역 중에서도 오랜 전통문화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고려 시대에는 운문사를 중심으로 圓應, 國師, 學一 등 여러 고승들을 배출하였고, 고려 말 雲門寺와 湧泉寺는 一然의 주된 활동 무대가 되는 등 불교가 융성한 지역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영남 사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유교 문화의 요충지로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서적의 요구와 인쇄 출판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청도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관청을 비롯한 사찰, 서원 등 다각적인 서적 간행 활동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러한 청도 지역의 인쇄 문화에 대하여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남의 군 단위 지역 출판문화를 살펴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청도 지역의 전적인쇄 문화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이에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출판 활동에 대한 역사 및 배경적인 사실을 고찰하고, 그 결과물로 남아있는 전존본을 서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청도 지역의 출판 활동을 다룬 선행의 연구로, 趙婷化¹⁾는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영남지역 관서의 간행 사업이라는 범주에서 청도 지역 간본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또 朴相國²⁾은 전국의 사찰 관목을 조사하였고, 여기에는 지역에 위치한 雲門寺와 湧泉寺, 磻川寺의 3개 사찰이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관목에 대한 조사로 한국국학진흥원³⁾은 청도 지역에 남아있는

1)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2)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3)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同院, 2007).

목판에 대하여 문중과 서원, 사찰 등에 소장된 그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밖에도 南權熙⁴⁾는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불서를 다루면서 청도 지역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인본에 대하여, 사찰에 따른 시기별 판각 현황을 종합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지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청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방식의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간본의 조사 대상은 시기적으로 1910년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리고 판종별로는 지역에서 금속활자를 통한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필사본을 제외한 목판 및 목활자를 통한 간행 활동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2. 청도의 역사 및 출판문화사적 배경

2.1 역사 및 지리적 환경

2.1.1 역사

선사시대의 청도 지역은 일찍이 신석기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며,⁵⁾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물과 유적이 군내 여러 곳에서 발견⁶⁾되고 있다.

지역에서 통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변진 24개국의 하나인 優由國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우유국의 실체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후 청도 지역에는 伊西國이 자리잡았고, 이서국과 신라와의 투쟁 기록⁷⁾이 전하기도 한다.

4)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敎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1999. 2), 351-456.

5)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서울: 一志社, 1986), 22.

6) 金英夏, “淸道 華洞里 先史遺跡,” 『歷史敎育論集』 제1집(1980. 11), 31-40.

金相冕, “淸道 沙村里遺蹟 發掘調查報告,” 『考古學誌』 2집(1990. 7), 105-166.

부산대학교박물관 編, 『淸道 梧津里 岩蔭 遺跡』 (부산: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

박달석, “淸道地域 靑銅器時代 住居構造의 變遷에 대하여,” 『啓明史學』 17집(2006. 11), 355-395.

삼국시대 군현들은 과거 산성의 이름으로 돌아가 호족들의 지배를 받는 형색이었다. 이에 청도 지역 또한 예외일 수 없었고, 이 지역은 주로 甄萱의 세력권에 흡수되어 신라를 공략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⁸⁾하였다.

그 뒤로 이서국은 신라에 편입된 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인근의 仇刀城 및 率伊山城 등과 함께 병합되어 伊西郡이 되었다. 그리고 경덕왕 16년(757)의 지방제도 개편시 이서군은 다시 분리되어, 그 예하에는 烏嶽縣, 荊山縣, 蘇山縣⁹⁾을 두기도 하였다.

한편, 고려 통일 이후 태조 23년(940)에는 大城郡과 烏岳, 荊山, 蘇山縣의 3개 현이 통합되어 새로이 청도군을 형성¹⁰⁾하게 되었다. 이 당시 청도군은 密陽府의 관할 하에 있었다.

이후 청도는 지역 명칭의 일부 변화가 있어서 현종 1년(1010)에는 道州로 되었다가, 睿宗 4년(1109)에는 監務가 설치되었다. 그 뒤 고려 후기 충혜왕 3년(1342)에 知郡事로 승격되었다가, 이듬 해(1343)에 다시 監務로 강등되었다. 이어 고려 말 공민왕 15년(1366)에 金漢貴에 의하여 다시금 知郡事¹¹⁾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청도 지방은 한 동안 고려 후기의 체제를 유지한 채, 지역적인 변동은 없었다. 이후 태종 13년(1413)에 이루어진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 시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청도 지역은 郡체제로 머물렀다.

조선 초기 관찬 地誌격인 『世宗實錄』 <地理誌>에 따르면, 이 시기 지역은 호구수 649호로 인구가 3천 3백 61명이었다. 여기에 軍丁은 侍軍이 33명, 鎭軍이 87명, 船軍이 2백 55명에 이르고,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지역이 반반에 달하였다. 또한 기후는 따뜻하며, 墾田이 3천 9백 32결에 이른다¹²⁾고 하여, 당시 군단위 지역으로는 주변의 대구나 경산 지역에 버금가던 규모로 파악된다.

7) 『三國遺事』 권제1 <紀異> 제1 伊西國條.

8) 淸道郡 編, 『내고장 전통문화』 (청도: 청도군, 1982), 24.

9) 『三國史記』 권제34 <雜誌> 제3 密城郡條.

10) 『高麗史』 권제57 <志> 11 地理 慶尙道 淸道郡條.

11) 『高麗史』 上 同條.

12) 『世宗實錄』 권제150 <地理誌> 慶尙道 慶州府 淸道郡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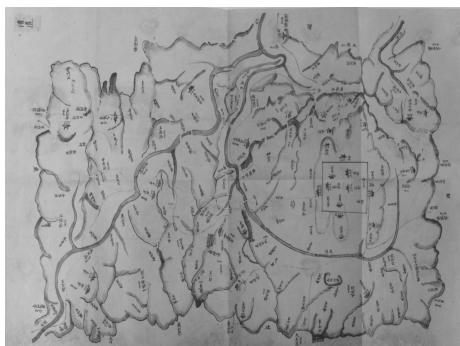
그 뒤 세조 3년(1457)에는 병조의 건의로 鎭管制가 확립됨에 따라, 청도는 경산과 하양, 현풍 등과 같이 大丘鎭에 소속¹³⁾되었다. 조선 중기 청도를 포함한 경상도 지역은 분할과 합속을 수차례 거듭하였다. 당시 청도 지역은 중종 14년(1519)에는 경상 좌도에 속하였다가, 다시 선조 29년(1596)에는 주변의 지역과 함께 경상도로 합속¹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 청도 지역 제도와 문물을 잘 알려주는 자료가 전한다. 즉, 17세기 후반 현종 14년(1673)에 편찬된 청도 지역 사찬읍지 『鰲山志』의 기록¹⁵⁾에 의하면, 읍지가 작성되던 17세기 청도 지역은 전답이 3,321결에 달하고, 호구 5,328호에 인구는 20,155명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15세기 중엽에 비하여 지역의 호구와 인구수가 6배 이상 급격히 증가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17세기 후반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東輿備考』에는 당시 청도 지역을 잘 묘사하고 있다. 북쪽으로 대구를 두고, 남으로는 화왕산을 경계로 창녕과 마주하며, 동서로 경산과 현풍에 인접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도 郡을 중심으로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고, 고을의 앞쪽에는 지금의 운문천의 원류가 되는 紫川이 크게 가로질러, 지역을 풍족하게 조성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東輿備考』에 수록된 청도



<그림 2> 조선후기 영조연간 청도군 지도

13) 『世祖實錄』 권제9 世祖 3년 丁丑 10월 20일 庚戌條.

14) 『宣祖實錄』 권제82 선조 29년 병신 11월 20일 壬子條.

15) 『鰲山志』 제40장 <田結元數> 및 <帳籍戶口元數>.

이처럼 조선 후기 청도 지역은 郡으로 체제를 정비하였고, 전답과 인구가 늘고 문화적으로도 번성하였다. 또한 통치 제도면에서도 안정을 갖추면서, 이후 18세기까지 지역 체제나 행정 제도상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갑오경장을 계기로 대대적인 지방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청도 지역은 고종 32년(1895) 경상북도에 속하였고, 선산과 예천과 같은 三等郡이 되었다. 19세기 중엽 작성된 『淸道郡邑誌』¹⁶⁾에 따르면, 당시 지역의 戶數는 7,351호에 인구는 남자가 15,240명, 여자 17,370명에 달해 현재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추었다.

20세기 들어 고종 43년(1906)에는 추가적인 행정구역 정비 일환으로 대구에 속해있던 角北, 縣內, 角初面이 청도군에 합속¹⁷⁾되기도 하였다. 이듬 해(1911)에는 청도군에 포함되어있던 外西面이 재차 밀양군으로 이속되는 등 지방 구역의 개편 과정을 겪었다.

2.1.2 자연지리적 환경

청도군은 남북으로 뻗어있는 태백산맥 남단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앙의 熊峙 즉 지역에서 흔히 곱티재라 일컫는 고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뉜다. 동쪽 산세는 雲門山과 加智山 및 文福山이 중첩되어 있고, 서쪽은 琵琶山을 위시하여 華岳山, 龍角山, 鐵馬山 등이 솟아 있다.

군의 남쪽으로는 億山과 九萬山이 위치하고, 북으로는 三聖山과 上院山이 있어 금호강 유역과 밀양강 유역의 분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청도 지역의 산악 형세에 대하여는 『鰲山志』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청도 지역은 산천이 견고하게 감싸고 있고, 지금의 龍角山인 甲峯과 서쪽의 비슬산 그리고 동쪽의 屯德山이 울연히 솟아있다. 또 남쪽에는 화악산이 가로지르니 고을의 主山이 되고, 관청이 이와 가까웠고 이름을 달리하여 鰲山이라 칭¹⁸⁾하였음을 밝혔다.

16) 『淸道郡邑誌』 제3장 <戶口>.

17) 淸道郡誌編纂委員會 編, 『淸道郡誌』 (淸道: 淸道郡, 1991), 189.

18) 『鰲山志』 제1장 <山川形勢總論>.

이와 같은 지형세로 말미암아 청도 지역은 예로부터 東北으로는 대구와 경산 방면으로, 南西로는 현풍과 창녕 그리고 밀양 방면의 길목이자 이 지역으로 통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통오달의 교통 요지¹⁹⁾이기도 하였다.

한편, 지역의 하천은 풍각 일대의 妙峰山 등 산지에서 발원한 淸道川과 운문면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東倉川의 양대 하천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그 밖에 남쪽의 天王山과 妙峰山쪽에서 발원하는 몇몇 지류천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연안에는 충적지와 농경지를 형성하고, 비교적 비옥한 평야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하천이 관통하는 자연 지리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雲門寺, 磻川寺, 湧泉寺 등과 같은 명찰들을 조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세를 뒤로 한 인근 지역에서는 16세기 초부터 紫溪書院, 南岡書院 등 서원과 서당 및 누정, 재실 등이 속속 설립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자연 환경과 지리적·문화적 특성은 청도군을 다른 지역과 구분하는 특수성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지리적 여건과 특수성은 조선 시대 이후 면면히 이어온 청도 지역 출판문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하였다.

2.2 출판문화사적 배경

청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서적의 출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들이 갖추어졌다. 이는 신라 이후로 지역의 雲門寺, 磻川寺 등을 중심으로 이어온 불교 문화와 조선 시대 서원이나 서당, 향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유교적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여기에 청도 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조선 후기 유학이 융성하였던 분위기도 지역 출판문화 형성에 일조하였다.

이 지역 불교 사찰은 磻川寺와 雲門寺, 그리고 조선 중기까지 사세를 떨쳤던 水巖寺로 대표된다. 또한 사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薪菴寺 등지에서도 조선 초기부터 불서 간행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확인된다.

청도 지역 불교의 태동은 신라 眞興王 28년(567) 운문산, 당시 이름으로 虎踞

19) 淸道郡 編, 『淸道郡誌』 (청도: 청도군, 1991), 53.

山 五岬寺가 창건된 시점으로 소급된다. 五岬寺라 칭하였던 것은 중앙의 大鵠岬寺, 동편 嘉瑟岬寺, 서편 大悲岬寺, 남쪽 天門岬寺, 북쪽 所寶岬寺을 아울러 명명²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앙의 大鵠岬寺가 지금의 雲門寺 전신이 되었다.

운문사 창건 이후 文武王 4년(664)에는 원효대사에 의하여 磻川寺가 세워졌고, 이후 두 사찰은 조선초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역 불교의 양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통일신라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운문산 大悲寺과 비슬산의 湧泉寺, 그리고 고려시대 세워진 華岳山의 薪茆寺 등 지역에서는 사찰들이 속속 설립되어 불교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중 특히 운문사에서는 조선시대 접어들면서 지역 사찰강원으로서 역할이 두드러졌고, 경내에서는 불교 의식서와 四集科 강독 교재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던 사례가 특기할 만하다. 또한 磻川寺에서도 『妙法蓮華經』을 비롯한 불교 儀禮書들이 지속적으로 판각되었다. 이로 미루어 지역 내 사찰을 중심으로 한 서적의 수요와 그에 따라 인근 佛舍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진 사찰의 출판 활동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운문사와 적천사 외에 주변의 薪茆寺, 水巖寺, 靑蓮社 등지에서 도 불서가 지속적으로 간행된 사례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편, 조선 중기 이후에 사찰뿐 아니라 郡을 중심으로 한 유교 교육 기관의 조성과 그에 따른 서적의 출판 활동도 간과할 수 없다.

청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유학과 관련되어 서원이나 서당 및 향교 등이 여러 곳 조성되었다. 이들은 16세기 이후 지역의 유교 교육기관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16세기 중엽 건립된 淸道 鄕校를 비롯하여 紫溪書院, 仙巖書院, 南岡書院, 芝山書院 등이 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서원의 수도 10여 곳이 넘는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기관은 청도 관련 지리지나 지역의 郡誌에 따르면, 18세기 이후 집중적으로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뿐 아니라 鳳陽書堂, 林湖書堂 및 지역 내 齋室과 樓亭, 齋舍 등 유교 교육 및 배향 기관은 300여 곳 넘게 조사²¹⁾되기도 하였다.

20) 『淸道雲門寺山錄』 제2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도군은 주변의 雲門山과 華岳山을 중심으로 한 사찰의 발달과 지역에서 융성하였던 유학의 학풍이 서적 출판의 주된 동인이 되었다. 여기에 주변의 환경적 요인과 맞물려 지역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서적의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출판 활동이 조선 초기부터 20세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더불어 기록 및 실물로 확인되는 이러한 지역 출판의 영역으로 조선 초기에는 사찰이 간행 사업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 17세기를 기점으로 官과 향교, 서원 등 유교 교육기관의 출판까지 그 분야가 확장되었고, 여기에 조선 후기 사가의 문집 출판까지 합세되었다. 이러한 지역 출판 활동은 1908년 최초의 사립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3. 서적의 간행 및 유통 기록

3.1 삼국 및 고려 시대

이 시기 청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헌의 직접적인 유통이나 간행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희소하다. 지역에서는 일찍이 선사시대의 토기와 석기, 지석묘나 청동기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농경 및 정착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신라 영토에 속해있으면서, 당시 이미 雲門寺와 磻川寺 등의 사찰이 성립되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일찍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圓應이나 一然 등 당대 고승들이 지역 사찰에 머무르면서 불교의 전성기를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과는 달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시기 기록물 유통의 흔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청도의 유명한 문사이자 충신이었던

21) 淸道郡 編, 『淸道郡誌』(청도군: 淸道郡, 1991), 960-982.

金之岱에 관한 일부 正史 기록²²⁾과 圓應國師 學一(1051-1144)이 운문사에 머물 당시 그의 행적을 기록한 묘갈명²³⁾이 사찰의 경내에서 확인될 뿐이다.

한편, 이 시기의 인본으로 14세기 후반에 찍혀진 것으로 여겨지는 『春秋經左氏傳句解』 권 60-70의 1책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 책은 권말 간기에 ‘宣光六年十一月 清道開板’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에 따르면 고려 禡王 2년(1376)에 새긴 청도 간본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동일 권차의 또 다른 인본이 알려지면서 세종 13년(1431)에 새겨진 판본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와 별도로 당시 지역 사찰에 머물렀던 一然(1206-1289)의 저술 및 간행 활동이 주목된다. 즉, 13세기 중엽 이후 일연은 청도 雲門寺 및 비슬산 일대의 사찰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저술 및 간행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그는 청도 비슬산 湧泉寺를 중수하였고, 사찰의 이름을 고쳐 佛日社로 명명²⁴⁾하였다. 충렬왕 3년(1277)에는 왕명에 의하여 雲門寺의 주지로 있으면서, 이듬 해(1278) 인근 비슬산 仁興社에서 『歷代年表』의 간행을 주관하였다.

이 때 간행한 『歷代年表』가 이후 본인이 운문사에서 충렬왕 3년(1277)을 기점으로 『三國遺事』를 저술할 때 그 기초 자료가 되었음²⁵⁾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뒤로도 충렬왕 15년(1289)에는 一然의 命으로 『人天寶鑑』의 간행이 도모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一然 주도의 저술 및 간행 사업 이후에도 비슬산 仁興社에서는 『大悲心陀羅尼啓請』 등 여러 경전이 판각²⁶⁾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도 지역에서는 13세기 중엽 이미 출판의 여건을 갖추고, 운문사 등 주변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서적 간행 및 출판 활동이 이루어졌던 정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편, 11세기 초 청도군은 慶州都護府에 속한 道州였고, 郡으로 독립한 것은 14세기 惠忠王 때의 일이다. 당시 지역이 속한 경주도호부에는 이미 수차례

22) 『高麗史』 권제102 <列傳> 권15 <諸臣> 金之岱條.

23)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中世 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659-668.

24)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中世 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1069.

25) 蔡尙植 著,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117.

26)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6.

서적의 간행 사례가 확인²⁷⁾되고 있으므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출판 시기를 앞당겨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2 조선시대

조선시대 청도 지역의 출판 양상은 고려 후기 지역 일대에서 고양된 사찰의 간행 사업이 지속되었던 것과 더불어 淸道官을 비롯하여 서원이나 향교 및 사가의 출판까지 다원화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임란을 기점으로 서적이 간행되었거나 유통되었던 사실의 관점에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임란 전

이 시기 지역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과 유통에 관련된 가장 빠른 내용으로, 세종 13년(1431)에는 경상도와 청도군의 협의로 『春秋經左氏傳句解』가 청도에 서 판각²⁸⁾되었다. 淸道知郡事가 간행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므로, 조선시대 淸道官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출판 사례이다.

그리고 단종 즉위년(1452) 8월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당시 청도 향교의 敎授官을 지내던 高克散이 올린 『祭器圖』를 예조에 내려주기²⁹⁾도 하였다. 교수관 高克散이 올린 『祭器圖』가 간행된 것인지 필사인지 알 수 없으나, 조선초기 지역에 위치한 청도 향교의 비중을 엿볼 수 있다. 이 기록은 또한 청도 향교에 관한 자료가 한전하여 선조 초기에 창건되었다는 설 등이 있으나 향교에서 『祭器圖』를 만들어 상송하고 있으므로, 당시 향교는 이미 배향이나 강학의 공간을 갖춘 정비된 모습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더불어 세조 10년(1464) 7월에는 『新刊排字禮部玉篇』과 『新編直音禮部玉篇』이 청도군에서 개판³⁰⁾되기도 하였다. 이 책에 대하여 이인영은 자신의 『淸

27) 『高麗史』 권제6 <世家> 권제6 靖宗 8년 二月條.

28) 『空印博物館』 (양산: 空印博物館, 2008), 70.

29) 『端宗實錄』 권2 단종 즉위년 8월 11일 辛未條.

芬室書目」에도 「排字禮部韻略」과 같은 해(1464)에 새겨진 淸道 각판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서목상 「新刊排字禮部玉篇」의 서지 기술시 이인영 소장본의 권수제는 「新編直音禮部玉篇」이고, 권미제가 「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으로 표기하여 서명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각 지방의 관청을 주축으로 활자본의 번각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번각 사업에는 비단 경상도뿐 아니라 제주, 충청, 전라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졌다. 영남 지역의 사례로 경상도 慶州와 密陽, 咸陽 등에서도 간본이 확인되고, 청도군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즉, 15세기 후반 성종 9년(1478)에는 청도에서 「纂圖互周周禮」가 판각되었다. 당시 善山都護府使로 있던 金宗直이 자신이 소장한 갑인자본을 회사하여 경상도의 13개 읍에서 번각³¹⁾토록 한 판본이다. 책의 출판은 중앙의 하명에 따라 지방에서 관청 주도로 이루어진 간행 사업의 일환이었다. 또한 연산군 8년(1502)에는 경자자 인본인 「五朝名臣言行錄」이 청도 군수 李胤의 주도로 청도군에서 번각³²⁾되기도 하였다. 「言行錄」판은 선조 9년(1576)과 선조 18년(1585)刊 「攷事撮要」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군수 李胤이 주관하여 새긴 판으로 여겨진다.

비슷한 시기 지역 사찰의 간행 활동도 병행되었으니, 성종 7년(1476) 청도 薪菴寺에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개판된 것을 필두로, 16세기 중종 10년(1515) 운문사에서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가 판각³³⁾되기도 하였다.

물론 지역 사찰의 출판 정황은 고려 후기부터 확인되지만, 인본으로 밝혀진 불서 간행의 시발은 15세기 후반으로 비정된다. 薪菴寺와 운문사의 출판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20세기까지 끊이지 않고 불경류들이 찍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 출판의 중심에는 虎踞山 운문사가 있었고, 그 밖에 磻川寺와 水巖寺, 靑蓮社 등 주변 사찰들도 가세하였다.

한편, 지역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교류 사례로, 명종 1년(1546)에는 청도 군수 安太

30)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29.

31) 「纂圖互周周禮」 <跋>.

32) 金斗鐘 著,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81), 206.

33)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298.

古가李文樞에게 장황하여 날인된『名臣言行錄』13책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명종 17년(1562)에는 당시 청도 군수인 成君實에게『周禮』의 인출을 여쭙었는데 답이 없었다고 기록³⁴⁾하였다. 교류의 대상이 된『言行錄』 판본은 앞서 연산군 8년(1502) 官에서 인출한 판으로 여겨지며,『周禮』 또한 성종 9년(1478)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두 간본 모두 선조 9년(1576)에 간행된『攷事撮要』에 청도 책판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관 주도로 간행이 이루어져 판의 보관도 소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일기자료 기록으로 柳希春의『眉巖日記』에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서적 유통 기록이 나타난다. 선조 2년(1569) 윤6월 10일에 慶尙道 右兵使 徐應千이 진주 판관 辛應基와 힘을 모아 청도에 있는『性理大全』을 인출하여 보내겠다고 하였다. 같은 달 20일에도 경상우병사에게 청도판『性理大全』의 인출을 부탁하고 있다.

결국 선조 6년(1573) 8월에는 청도 군수가『濯纓集』2책을 보내어 왔는데, 이는 선조 5년(1572) 12월 6일 청도 군수 鄭希曾에게 교정을 부탁한 뒤의 일이다. 그 뒤로도『濯纓集』은 선조 9년(1576) 3월 27일에 改正本 1장을 청도에 보내어 刻印해 보내주도록 청하고 있다.³⁵⁾

유희춘이 인출을 약속받은『性理大全』과 청도 군수 鄭希曾에게 받은『濯纓集』 모두 선조 9년(1576)에 간행『攷事撮要』에 청도 책판으로 수록되어 있다. 두 인본 모두 지역에서 출판되어 판목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 부언컨대, 이와 같이 당시 작성된 책판 목록에는 관에서 관리되거나 판각된 간본들 위주로 기재된 반면, 사찰 소장 판목들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청도 지역만 하더라도, 책판목록이 작성될 16세기 후반 이미 주변의 薪菴寺나 雲門寺 등지에서는 활발하게 불경을 찍어내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렇게 새겨진 판목들은 온전히 사찰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책판 목록의 성격상 중앙 또는 지방 관청에서 행정이나 통치 용도로 제작되었으므로, 굳이 사찰 소장 판목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4) 禹貞任,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09), 181.

35) 禹貞任, 상계논문, 220.

이 밖에도 16세기 후반 운문사에서 이루어진 불경류의 집중적인 판각 사업도 지역 출판 활동으로 빠트릴 수 없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사찰에서는 선조 21년(1588) 주로 사미과의 강원 교재로 사용되었던 『誠初心學人文』과 『緇門警訓』 등 불서류 5종을 한꺼번에 새겨내기도³⁶⁾ 하였으며, 이 때 새겨진 판목들이 현재까지 사찰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므로 특기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임란 전 청도 지역에서는 운문사를 비롯한 인근 사찰과 淸道官을 중심으로 서적의 간행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존본과 실물이 전하지 않지만 당시 책판목록상 지역 간본을 일람할 때, 임란 전 청도에서는 문집이나 예서류, 운서류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판각되고 있었다. 또한 官의 수장이었던 군수를 중심으로 주변 문인들과의 활발한 서적 교류 사례도 확인할 수가 있다.

3.2.2 임란 후

임란 후 지역에서는 사찰의 출판 활동이 지속됨과 더불어 예학 등 유학이 발달하여 자연스럽게 향교와 서원 같은 지방 교육기관의 간행 활동도 이어졌다. 특히 18세기 이후 지역 문증을 중심으로 한 문집이나 보첩의 간행은 이 시기 출판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여겨진다.

17세기 이후 사찰의 간행 사업은 인조 9년(1631) 운문면 水巖寺에서 『念佛作法』 등 5종의 경전이 동시에 판각³⁷⁾된 것을 시작으로, 효종 5년(1654)에 추가로 『佛說大目連經』이 開板되었다.

여기에 운문사의 출판 활동은 임란 후에도 활발히 지속되어, 효종 10년(1659)에는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을 開刊³⁸⁾되었다. 18세기에도 『大悲心陀羅尼經』과 『六經合部』를 판각하는 등 운문사의 불서 간행은 20세기까지 이어졌다. 또한 18세기 이후 지역의 靑蓮社와 磻川寺의 판각 활동도 끊이지 않아서 지역 사찰

36)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서울: 민昌文化社, 1999), 428.

37)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74.

38) 『佛家日用食時默言作法』 <刊記>.

출판의 고양된 면모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17세기에는 유교 교육기관의 출판도 이어졌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조 9년(1631) 紫川書院에서 인출된 『濯纓先生文集』의 간행³⁹⁾이다. 기록상 『濯纓集』은 이미 중종 14년(1519) 2월에 문집이 초간되고, 현종 9년(1668) 5월에 再刊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순조 27(1827) 三刊 및 현종 4년(1838) 四刊 후에, 고종 11년(1874)에는 『濯纓先生年譜』가 초간⁴⁰⁾되었다. 하지만 현존본의 경우 기록과는 차이가 나고, 『濯纓先生年譜』에 명시한 판본 외에 지역을 달리한 추가 판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8세기 이후 관청이나 지역 문중 및 사가에서 이루어진 문집과 실기류의 간행 사실을 빠트릴 수 없다. 그러한 사례로 숙종 34년(1708)에는 남구만이 서문을 짓고, 林泳의 아우인 청도 군수 林淨에 의하여 형의 문집인 『滄溪先生文集』이 영천 관내에서 판각⁴¹⁾되었다. 이 문집의 판목은 새기고 인역을 마친 뒤 인근의 磧川寺에 보관되었으나, 현재는 산실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정조조에는 중앙의 인출 사업에 청도 사람들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시키기도 하였고, 임금의 하명에 따라 종이나 單子 등을 지역에 내려 준 기록이 전한다.

일례로 정조 7년(1783)에는 중앙에서 경상도 일대의 청도, 의성, 선산, 영천, 안동 등 33개 군과 읍에 각각 백지 4전씩을 내려주기⁴²⁾도 하였다. 당시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白紙, 壯紙, 綿紙 등 여러 종류의 종이를 사급한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종이의 내려주는 것은 지방의 요청 뿐 아니라, 서적 인출이나 간행을 목적으로 각 지방에 종이를 사급한 뒤 다시 중앙으로 상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정조 10년(1786)에는 중앙에서 이루어진 謄冊이나 哀冊의 인출이나 응행절목 마련 시 청도 지역의 部將 등이 참여⁴³⁾하고 있다.

39) 『濯纓先生文集』 <跋>.

40) 『濯纓先生年譜』 1903년본.

41) 『滄溪先生文集』 <跋>.

42) 『內閣日曆』 정조 7년(1783) 정월 17일 己酉條.

43) 『內閣日曆』 정조 10년(1786) 6월 23일 乙未條.

또한 정조 21년(1797)에는 초계문신 申絢이 부친이 병상에 누워 청도군으로 내려가니 單子和 臘藥 3종을 청도군에 내려44)주기도 하였다.

한편, 정조 22년(1798) 청도군수 金履喬가 올린 소문에 따르면, 영남의 열읍 즉 대구와 밀양, 창녕 등지에서 社倉이나 還穀시의 폐단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대구와 청도 등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는 幼學들의 뇌물을 통한 譜牒 간행 사례45)를 경계삼고 있다. 이 시기 지역의 유학들에 의한 임의적인 족보류 간행이 성행하였음을 알려준다.

이 밖에 20세기의 기록으로 고종 39년(1902)에는 청도 지역의 金鏗과 그의 자손 金致九 일가에서 譜牒을 몇대로 만들어 간행하고, 仕版을 조작한 사례를 경계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서 김씨 일가는 보첩의 遺稿와 年譜, 八高祖圖 및 識文과 발문에서 관련 내용을 몇대로 삭제하고, 허위로 종손행세를 하였던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46)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문중에서 이루어졌던 보첩 간행의 폐단이 당시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기록과는 별도로 현존 인본들을 살펴보면, 철종 8년(1857)에 淸道에서 군수 洪稚健이 『續史略翼箋』를 校勘하여 간행47)하였고, 광무 10년(1906)에는 淸道 勒坪에서 『東洲先生逸稿』를 刊板48)하였다. 이듬 해(1907) 雲門寺에서는 『禪門撮要』가 개간되어 東萊 金井山 梵魚寺에 移鑄49)되기도 하였다.

이후로 1911년 청도향교에서는 『淸道鄉案正名錄』이 목활자로 간행50)되었고, 사가에서도 목판 또는 목활자를 통한 문집 간행을 이어가는 등 지역의 출판 활동은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상으로 청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과 교류 내용을 인본을 비롯하여 관찬 사료와 문집, 일기 자료 등을 중심으로 개관하여 보았다.

44) 『內閣日曆』 정조 21년(1797) 12월 9일 甲辰條.

45) 『承政院日記』 정조 22년(1798) 12월 29일 戊午條.

46) 『承政院日記』 고종 39년(1902) 9월 29일 丙戌條.

47)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139.

48) 尹炳泰 編, 상계서, 153.

49) 尹炳泰 編, 상계서, 154.

50) 『淸道鄉案正名錄』 <跋>.

이러한 내용 중에는 간본이 현존하지 않고, 기록만 남아있는 사례도 다소간 있다. 그 밖의 청도 지역 간기를 가진 현존 인본들은 후술할 간행 서적의 검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 책판 목록 및 읍지 수록 서적

책판 목록이나 읍지 또는 重記 등 중앙이나 지방 관청 주도로 만들어진 2차 자료에 수록된 책판은 지역의 출판 상황을 소급하여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만, 이와 같은 자료에 기재된 책판의 검토 시 수록 책판명이 지역 간행서와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우선 책판 목록에는 대부분의 사찰소장 판목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고, 또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지역 간 책판의 대차 또는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탓도 있다.

실제로 동일 판목이,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된 책판 목록상 다른 지역 책판으로 중복 기재된 경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결국 책판 목록에 수록된 책판은 새긴 장소가 아니라 官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책판에 대한 조사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이러한 2차 자료의 수록 여부는 지역에서 간행이 이루어져 동일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청도 지역에서 보관 또는 관리되었던 책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책판 목록 수록 서적

4.1.1 임란 전

임란 전 간행된 책판 목록 가운데, 청도 지역의 책판이 수록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임란 전 책판 목록에 수록된 청도 지역 책판

목록명	수록 책판명	목록刊年	비고
攷事撮要	『通鑑』, 『禮部韻』, 『周禮』, 『雙梅堂集』, 『名臣言行錄』, 『性理大全』, 『濯纓集』, 『草書韻會』	1576	을해자
攷事撮要	『通鑑』, 『禮部韻』, 『周禮』, 『雙梅堂集』, 『名臣言行錄』, 『性理大全』, 『濯纓集』, 『草書韻會』	1576	목판본
攷事撮要	『通鑑』, 『禮部韻』, 『周禮』, 『雙梅堂集』, 『名臣言行錄』, 『性理大全』, 『濯纓集』, 『草書韻會』, 『性理節要』, 『新曾類合』	1585	목판본

이상과 같이 임란 전 책판 목록에는 모두 10종의 판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책판 중 『禮部韻』, 『周禮』, 『名臣言行錄』의 3종은 현재 인본으로 확인된다. 또한 『性理大全』도 선조 2년(1569)에 청도 지역에서 인쇄되었던 기록⁵¹⁾이 전한다.

이 가운데 선조 9년(1576)판 『攷事撮要』의 『濯纓集』 판목이 주목된다. 이는 문집의 간행이 金駙孫(1464-1498)의 고향이자 활동의 근거지인 청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당시 책판 목록에 기재된 판은 『濯纓集』의 初刊版으로 여겨지고, 이 사실은 선생의 연보 기록⁵²⁾에서 재차 확인된다. 즉, 선생이 죽은 뒤 중종 13년(1518)에 駙孫의 고택인 雲溪精舍를 紫溪祠로 고쳐 세웠다. 그리고 문집은 중종 14년(1519) 紫溪祠에서 간행되었음을 밝히, 이 해(1519) 紫溪祠에서 간행되었던 版으로 여겨진다. 한편, 紫溪書院의 전신인 紫溪祠가 서원으로 승격된 것은 선조 9년(1576)의 일이다.

비단 책판 목록 수록 서적 뿐 아니라, 이 시기 지역에서는 주변 사찰의 儀式書와 강원교재 등 佛經類가 꾸준히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출판된 서적의 주제 분야는 佛經과 文集類, 春秋 및 史書類, 字書類 등 다양화된 양상이었다.

4.1.2 임란 후

임란 후 책판 목록에 수록된 지역 소재 책판은 그 빈도와 종수면에서 임란 전보다 증가된 면모를 보인다.

51) 柳希春, 『眉巖日記』 제2책, 선조 2년(1569) 윤6월 10일.

52) 『濯纓先生年譜』 1903년본 <하권> 제31장-제34장.

<표 2> 임란 후 책판 목록에 수록된 청도 지역 책판

목록명	수록 책판명	목록寫年	비고
古書冊板有處攷	『名臣言行錄』, 『周禮』, 『禮部韻』, 『濯纓集』, 『草書韻會』, 『性理大全』	1700년경	필사본
慶尙道冊板	『禮部韻』, 『濯纓集』, 『陽村集』, 『三韻通考』	1730년경	필사본
冊板置簿冊	『禮部韻』, 『歸盤書』, 『濯纓集』, 『滕王閣』, 『陽村集』, 『東國地圖』, 『天下地圖』	1740년경	필사본
三南所藏冊板	『喪禮備要』, 『北涯集』, 『虞註杜律』, 『梧灘集』, 『東里集』, 『西涯集』, 『泛翁集』	1743년경	필사본
諸道冊板錄	『喪禮備要』, 『北涯集』, 『虞註杜律』, 『梧灘集』, 『東里集』, 『泛翁集』	1750년경	필사본
完營冊板目錄	『喪禮備要』, 『北涯集』, 『虞註杜律』, 『東里集』, 『西浦集』, 『梧灘集』, 『泛翁集』	1759년경	필사본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濯纓集』, 『禮部韻』	1760년경	필사본
各道冊板目錄	『滄溪集』, 『訓義小學諺解』, 『大千字』, 『警民篇』, 『同春堂屏風』, 『中正和平』, 『陽村集』, 『韻考』, 『類合』, 『新增韻考』	1778년경	필사본
古冊板有處攷	『名臣言行錄』, 『周禮』, 『禮部韻』, 『濯纓集』, 『草書韻會』, 『性理大全』	1780년경	필사본
書冊目錄	『滄溪集』, 『警民篇』, 『訓義小學諺解』, 『三韻通考』, 『大千字』, 『小千字』, 『悠悠字稿』, 『同春堂屏風書』, 『中正和平四字』, 『孝悌忠信四字』, 『陽村集』, 『濯纓文集』, 『禮部韻』	1815년경	필사본
各道冊板目錄	『警民篇』, 『濯纓集』, 『滄溪集』, 『訓義小學諺解』, 『千字』, 『三韻通考』	1840년	필사본
冊板錄	『滄溪集』, 『訓義小學諺解』, 『大千字』, 『警民篇』, 『同春堂屏風書』, 『孝悌忠信』, 『中正和平』, 『陽村集』, 『韻考』, 『新增韻考』, 『攸攸字稿』	·	필사본
嶺南冊板	『禮部韻』, 『濯纓集』, 『陽村集』, 『三韻通考』	·	필사본

이 시기 지역의 책판은 목록간 중복을 제외하면 전체 종수는 30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임란 전 책판이 6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임란 후 새롭게 추가된 청도 지역 책판은 24종이다.

개별 목록에 따라 동일 책판의 표기를 약서명으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서명의 한자 표기를 달리한 경우도 있다.

당시 새로 추가된 24종의 책판은 주로 문집 및 儒家類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東國地圖>와 <天下地圖> 등 지도와 병풍을 새긴 판이 남아있기도 하다.

또한 이 가운데 <孝悌忠信>, <中正和平>, <歸盤書>, <滕王閣> 책판은 독립된 서명이라기보다 詩나 문학 작품의 일부를 새긴 판목으로 여겨진다.

4.2 읍지 수록 서적

청도 지역을 다룬 일부 읍지에서도 지역에 소재한 책판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있다. 물론, 읍지는 地誌인 동시에 지방의 통치나 정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서의 성격이 강하여, 책판 목록에 비하여 책판에 대한 기록은 소략한 편이다.

<표 3> 읍지에 수록된 청도 지역 책판

읍지명	수록 책판명	읍지 寫年	비고
鰲山志	·	1673	필사본
淸道郡邑誌	『滄溪集板』, 『小學諺解板』, 『三韻通考板』, 『濯纓集板』, 『史略初卷板』, 『千字板』, 『警民篇板』, 『同春屏風書板』, 『地圖板』	1785	필사본
淸道郡邑誌	『滄溪集板』, 『三韻通考板』, 『小學諺解板』	1834	필사본
淸道郡誌	『滄溪集板』, 『三韻通考板』, 『小學諺解板』	1871	필사본
淸道郡郡誌	·	1894	필사본
慶尙北道淸道郡邑誌	·	1899	필사본

이상과 같이 지역 관련 읍지 6종 가운데 3종에서 책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수록된 책판은 중복을 제외하면 9종에 달하고, 1종을 제외한 나머지 8종은 책판 목록과도 일치한다.

이 중 『史略初卷』 판은 유독 정조 9년(1787) 작성된 『淸道郡邑誌』에만 확인되므로, 책판 목록의 기록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판들은 이미 순조 34년(1834) 『淸道郡邑誌』 상 『滄溪集』 판이 散秩되었다⁵³⁾고 밝혀서, 19세기 이후로 상당수 판목들이 흩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책판 목록에서도 확인이 되며, 19세기 이후 새로운 판목이

53) 『淸道郡邑誌』 1834年寫 제15장.

추가로 편입되기도 하였으나 기존 판목들은 점차 散逸되어가던 시기로 파악된다.

5. 간행 서적과 서지적 특성

5.1 간행 서적

이 장에서는 청도 지역에서 간행된 인본에 대한 검토로 전존 간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그 밖에 간본을 수록한 고서목록 등 2차 서지자료를 통하여 지역의 출판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집이나 기타 자료에 나타나는 간행 기록 등으로 보완되는 자료를 추가하여, 청도 지역 간행서적의 현황을 판각처 및 출판의 주체별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5.1.1 官版

청도 지역에서 간행된 官版의 유형은 주로 관청이나 관의 수장인 군수가 주관하였던 출판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된다. 예컨대 관 주도의 禮書나 經書, 蒙求書의 출판 및 郡守에 의한 선대 문집의 간행을 들 수가 있다.

하지만 군수가 주도한 문집 간행의 경우, 관판 또는 사가관의 범주에 귀속시키는 혼돈의 여지가 발생한다. 이 경우 여기서는 판각된 장소를 우선 적용하고, 더불어 공적 신분을 가진 출판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관판으로 귀속시켰다.

조선시대 청도관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간행 사업으로, 세종 13년(1431) 청도관에서 『春秋經左氏傳句解』 권제60-권제70의 1책이 판각되었다. 권말의 발문에 따르면, 당시 청도의 군수를 역임하던 淸道知郡事 朱郭의 책임 하에 판각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때 쓰였던 저본은 慶尙道 觀察黜陟使 曹致와 都事 安質이 주선하여 朴貫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이들이 어렵게 구한 판본⁵⁴⁾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54) 『春秋經左氏傳句解』 <跋>.

또한 세조 10년(1464)에는 조선 초기 유생 및 선비들의 자전으로 활용되었던 『新刊排字禮部韻略』과 『新編直音禮部玉篇』이 개판되었다. 이 2종의 판은 현존 본에서는 주로 합철되어 전하며, 『三韻通考』 간행 이전 운서로 많은 참고가 되었다. 비슷한 시기 중앙에서는 乙亥字로 간행되기도 하였고, 이후로 지방판으로 수차례 번각이 이루어졌다.

清道版은 목록상 일본 富岡文庫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하나 실물 확인은 어렵다. 다만, 이인영은 이 판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⁵⁵⁾하고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권수에 세조 10년(1464) 7월에 金孟(1410-1483)이 써서 올린 서문이 있고, 2권의 말에는 ‘大德庚子(1300) 良月梅谿書院刊’이라는 간기가 있음을 밝혔으나, 이 기록은 중국 판본의 원간기를 그대로 새겼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성종 9년(1478)에는 청도관이 주도하여 활자본 『纂圖互周周禮』가 목판으로 번각되었다. 판각을 완료한 뒤 작성한 김종직의 발문에 의하면, 경상도 관찰사 尹孝孫(1431-1503)이 영남 지역을 순찰할 당시 金宗直(1431-1492)을 만나 『周禮』가 사방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음을 고하였다. 이에 김종직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鑄字本을 내놓고 간인하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김종직의 뜻에 따라 판각 재료와 刻工이 있는 지역의 13개 읍에 명하여 판을 나누어 새기도록 하였다. 결국 판각 작업은 순조로이 마무리 되었고, 간역이 완료된 뒤 청도군에 藏板閣을 세워서 책판을 모아 간직⁵⁶⁾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얼마 뒤 연산군 8년(1502)에는 청도군에서 『五朝名臣言行錄』이 개간되기도 하였다. 김종직의 문하생이자 청도 향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李胤(1462-)이 작성한 발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언행록 판본이 드물어 안타까워 하던 차에 監司 金應箕(1455-1519)가 영남의 여러 읍에서 나누어 새길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얼마 뒤 安潤德(1457-1535)이 감독 업무를 맡아 새기는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니, 때는 홍치 14년(1502) 11월⁵⁷⁾이었다. 李胤의 발문에 뒤이어, 한 행에 걸쳐 ‘清道郡開刊’이라는 간기를 새겨두었다.

55) 李仁榮 編, 『淸芬室書目』 (서울: 寶蓮閣, 1968), 145.

56) 『纂圖互周周禮』 <跋>.

57) 『五朝名臣言行錄』 <跋>.

이후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관의 출판 활동은 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존본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록으로 볼 때 이 시기 관을 중심으로 『性理大全』⁵⁸⁾과 『新曾類合』 등의 서적이 판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濯纓文集』 또한 官의 판각 사례는 아니지만, 당시 군수를 역임하던 鄭希曾과 서원의 협조로 지역에서 출판이 도모되었던 정황⁵⁹⁾이 확인된다. 이 『濯纓文集』은 실물로 확인되는 가장 빠른 판본이 인조 9년(1631) 紫川書院 重刊本이므로, 당시 군수 鄭希曾이 참여한 인출 건은 16세기 초에 새긴 『濯纓集』 초간본으로 파악된다.

18세기 접어들어 숙종 34년(1708)에는 林泳(1649-1696)의 『滄溪先生文集』이 관내에서 판각되었다. 권말에는 저자 林泳의 동생인 청도 군수 林淨(1654-)이 문집 간행을 완료하고 작성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숙종 32년(1706) 가을에 판각을 시작하여 간역을 마친 것은 이듬 해(1707)였다. 그 뒤 인쇄하여 배포하고 판목은 磻川寺에 藏板閣을 지어 관리하게 되었으니, 판목의 보관까지 마친 것은 숙종 34년(1708) 8월⁶⁰⁾이었다.

한편, 18세기 초 간본으로 여겨지는 운서 『三韻通考』가 청도에서 간행⁶¹⁾되었다. 『三韻通考』에 대한 찬자와 편자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고려 말이라는 견해와 세종조, 또는 조선 중기 편찬설 등 현재까지 다양하게 추정⁶²⁾되고 있다.

다만, 현존하는 유간기 판본들은 18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청도관판 『三韻通考』 또한 본문에 이어 마지막 행에 ‘甲午淸道郡刊’이라고 밝혔다. 책의 판각 시기는 간기에서 밝힌 ‘甲午’와 판의 형식이나 현존본 상태가 추정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판의 형식이나 외형만으로는 구체적인 간행 시기를 판별하기 어렵고, 지역의 관청에서 새긴 경우 책판 목록상 기록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三韻通考』 판은 숙종 20년(1700)에 작성된 책판 목록에는 청도 책판으로 기

58) 柳希春, 『眉巖日記』 제2책, 선조 2년(1569) 윤6월 10일.

59) 柳希春, 『眉巖日記』 제3책, 선조 5년(1572) 12월 6일.

60) 『滄溪先生文集』 <跋>.

61) 『三韻通考』 <刊記>.

62) 이장희, “三韻通考의 저본에 대하여,” 『語文學』 제80집(2003), 107-108.

재되어 있지 않고, 영조 6년(1730) 이후 작성된 책판 목록들 상에는 꾸준히 나타난다. 따라서 이 책의 판각 시기는 숙종 40년(1714)으로 여겨지지만, 효종 5년(1654) 甲午 또는 그 앞선 시기에 판각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9세기 중반 철종 8년(1857)에는 『續史略翼箋』이 간행⁶³⁾되었다. 이 책은 洪奭周(1774-1842)와 洪吉周(1786-1841) 형제가 明代의 역사를 보완하고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다. 권수에는 趙斗淳(1796-1870)이 철종 7년(1856)에 지은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철종 8년(1857) 5월에 申錫愚(1805-1865)가 작성한 발문을 두었다. 발문 기록에 의하면 본 판은 청도 군수 洪稚強이 교감을 하여 청도에서 간행하였고, 이러한 간행 사업은 당시 경상도 관찰사를 맡고 있던 申錫愚 자신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상에서 서술한 淸道官에서 이루어진 간행 서적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청도 지역 官版 목록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원	刊年	비고
淸道官	春秋經左氏傳句解	11권 1책	杜預 編	목판	1431	영본, 공인박물관
"	新刊排字禮部韻略	5권 1책	丁度 撰	목판	1464	규장각, 청분실서목
"	新編直音禮部玉篇	2권 1책	미상	목판	1464	청분실서목
"	纂圖互周周禮	12권 5책	鄭玄 註	목판	1478	고려대, 봉좌문고
"	五朝名臣言行錄	54권 15책	楊廉 撰	목판	1502	국중
"	滄溪先生集	27권 14책	林泳 著	목판	1708	규장각, 국중
"	三韻通考	1책	미상	목판	[1714]	계명대
"	續史略翼箋	21권 6책	洪奭周 箋	목판	1857	규장각

5.1.2 寺刹版

청도 지역 사찰의 출판 활동은 雲門寺와 磻川寺, 水巖寺의 寺蹟類 및 불서 간행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간행 사업은 시기적으로 15세기부터 시작되어, 20세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지역 사찰 출판의 최초의 사례는 성종 7년(1476)

63) 『續史略翼箋』 <跋>.

청도 南山의 薪茆寺에서 개관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간행이다. 경전의 판각 업무에는 大施主로 前行首戶長 曹敏, 隨善에 司直 朴宜人, 金安善, 金大山을 포함한 17명과 각수로 正心, 祖林, 全山, 李山の 4명이 참여⁶⁴⁾하였다.

한편, 16세기부터는 단연 운문사의 간행 활동이 두드러진다. 중종 10년(1515)에는 수록재 의식집으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가 개관⁶⁵⁾되었다. 간행에 참여한 인물은 시주 38명, 공양주 1명, 연판 1명, 각수 1명, 大化主 1명이었다.

또한 16세기 말에는 불경 및 사찰 강학교재, 수행 지침서 등 5종의 불서가 운문사 경내에서 한꺼번에 새겨지기도 하였다. 즉, 선조 21년(1588)에 승려들의 수행시 규범서로서 『誠初心學人文』이 판각되었다. 이 책은 같은 해(1588) 1월에 개관⁶⁶⁾된 『蒙山和尚法語略錄』과 합철되어 전한다.

이 뿐 아니라 같은 시기(1588) 1월에 고승이나 大德의 要文을 모은 『緇門警訓』이 개관⁶⁷⁾되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5개월 뒤 선조 21년(1588) 6월에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 새겨졌다.⁶⁸⁾ 이 판본은 판심에는 ‘圓覺 上’, ‘圓覺 下’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 본문상에는 6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권6의 말미에 간기를 새겼고, 시주질이 이어진다. 승려 釋軒이 주도하여 僅連 등의 참여하여 판을 새겼다.

이 밖에도 같은 해(1588) 7월에는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가 판각되었다. 이 책은 중국 화엄종 제5조인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 知訥(1158-1210)이 중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자신의 견해와 설명을 덧붙여 편찬한 것이다. 권말 기록에 의하면, 판하본은 道林이 쓰고, 大施主와 板施主, 刻手 등 참여 인원이 50여명에 달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운문사 간행 5종의 불서 판목은 현재까지 사찰에 온전하게 보관⁶⁹⁾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16세기 후반 운문사의 간행 사업에 버금가는 출판 활동이 17세기 초

64)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서울: 民昌文化社, 1999), 365.

6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跋>.

66) 『蒙山和尚法語略錄』 <跋>.

67) 『緇門警訓』 <跋>.

68)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刊記>.

69) 문화재청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대전: 문화재청, 2007), 461-464.

仁祖 9년(1631)과 仁祖 10년(1632) 사이 水巖寺에서도 이루어졌다. 同寺에서도 1년 동안 불서 7종을 새겨내었고, 이후 17세기에 3종의 불서를 더 찍어내어 당시 고양되었던 출판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사찰 건물이 남아있지 않고, 청도와 영천의 경계에 위치하였던 사실과 水庵寺라고도 칭하였던 기록⁷⁰⁾만 전한다.

당시 간행된 불서로 인조 9년(1631) 여름에 『佛說阿彌陀經』과 『念佛作法』이 동시에 판각⁷¹⁾되었다. 이 두 종의 불서는 합철되어 전하는 바, 책의 간행에는 시주 25명, 각수로 戒熏, 義環, 太信, 寶淨이 참여하였고, 化主 乙敏, 鍊板 覺性, 書寫는 印暹이 담당하였다.

같은 해(1631) 6월에는 불교 의식서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가 개간⁷²⁾되었고, 이 책과 함께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가 찍혀지기도 하였다. 표지에 <中禮文>이라 묵서된 인본은 기림사와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말에는 간기를 새겼고, 간기에 앞서 간행 참여자로 鍊板에 覺性, 化主 乙敏, 別座 日叜, 供養主 一每 道淳을 밝혔다. 이들은 앞서 인조 9년(1631)에 판각한 『佛說阿彌陀經』의 참여자와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이 해(1631) 여름에는 『妙法蓮華經』 1책이 사찰에서 重刊⁷³⁾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을해자 인본을 다시 새긴 번각본으로 시주 133명, 대시주 17명, 각수 19명 등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되어 판을 새겼다. 이와 같은 인원은 단지 『妙法蓮華經』만을 판각한 것이 아니라 『中禮文』, 『結手文』 등도 함께 새기는데 참여⁷⁴⁾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 중에 각수와 鍊板者, 화주 등이 동일인들이 참여한 기록이 확인되고, 당시 함께 새겼다고 밝힌 『中禮文』, 『結手文』 등 일부 판본들은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 기록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듬 해(1632)에 水巖寺에서는 승려 六和가 찬술한 불교 의식서로 『預修薦

70) 權相老 編, 『韓國寺刹事典(上)』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4), 1091.

71) 『佛說阿彌陀經』 및 『念佛作法』 <刊記>.

72)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서울: 民昌文化社, 1999), 381.

73) 『妙法蓮華經』 <刊記>.

74) 卷末 跋文.

王通儀」가 개간⁷⁵⁾되기도 하였다. 『預修薦王通儀』는 판목이 현재까지 일부 사찰에 소장되어 있으나, 진존본의 경우 단독으로 편철된 예는 드물다. 현존하는 판본의 대부분은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와 합철되어 전하며, 두 책 모두 불교에서 사후 천도와 齋儀式 절차를 다룬 공통점이 있다. 水巖寺에서 같은 해(1632) 2월에 開板⁷⁶⁾한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간본이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로부터 얼마 뒤 효종 5년(1654) 水巖寺에서는 효도를 강조한 경전으로 『佛說大目連經』이 留板⁷⁷⁾되었다.

한편, 17세기 운문사와 적천사의 간행 활동도 이어졌다. 효종 10년(1659) 3월 운문사에서는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이 開刊⁷⁸⁾되었다. 판심에는 ‘日用’이라 제목을 두고, 본문을 새긴 제6장의 말미에 간기를 새겼다. 이 책은 비슷한 시기 인근의 磻川寺에서도 새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 13년(1672) 적천사에서는 『妙法蓮華經』 언해본이 개판⁷⁹⁾되었다. 이 판은 淸信居士 金義立이 발원하고, 시주 9명, 각수는 朴景浚이 맡았다. 그리고 판의 서사는 性裕가 담당하고, 證校에는 妙元이 참여하였다. 『法華經』은 한문본으로 同寺에서 숙종 10년(1684) 2월에 開板⁸⁰⁾되기도 하였다. 경전의 편철은 1권, 2권, 3권, 6권, 7권, 14권 등 다양하지만, 사찰에는 1권을 새긴 판목이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

또한 水巖寺 간본으로 숙종 6년(1680) 12월에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언해가 模刊⁸¹⁾되었다. 이 간본은 숙종 16년(1690)에 조성된 四天王像에 복장되어 있었던 판본으로, 사찰에 소장⁸²⁾되었다가 일실되었다. 同寺에서 이듬 해(1681) 4월에는 진언집으로 『摠歸眞言』이 開刊⁸³⁾되기도 하였다. 이 때 새겨진 판목이

75) 『預修薦王通儀』 <刊記>.

76)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 <刊記>.

77) 『佛說大目連經』 <刊記>.

78) 『佛家日用食時默言作法』 <刊記>.

79) 『妙法蓮華經』 <刊記>.

80) 『妙法蓮華經』 <刊記>.

81) 『佛說大報父母恩重經』 <刊記>.

82) 단국대학교 출판부 편, “磻川寺 四天王像 腹藏本 目錄,” 『國文學論集』 제12집(1985. 5), 315.

83) 『摠歸眞言』 <刊記>.

華岳山 적천사에 소장⁸⁴⁾되어 있다.

이 밖에도 17세기 적천사 간본으로 여겨지는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이 개간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권말에 ‘甲午仲春上澣銘巖之人就賢 / 謹跋 華岳山磧川寺開刊’이라는 간기를 밝히고 있다. 또한 책의 간행에는 산중 대덕으로 晶眼, 就賢, 三湖이 참여하고, 寺任은 太湖, 崇卞, 崇翊이 맡았다. 이 밖에도 施主 22명과 緣化 12명, 書記 2명, 別좌 2명, 연관 2명이 담당하였다. 이 책은 판의 양식이나 전존본의 상태로 미루어 보건대 17세기 간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17세기 중엽 주변 사찰의 의식서 판각이 활발하였던 점과 간행에 참여한 사람 중에 崇卞과 太湖도 이 시기 지역에서 간행된 『中禮文』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간기에 밝힌 ‘甲午’는 효종 5년(1654) 또는 늦어도 숙종 40년(1714)으로 여겨진다.

한편, 18세기 숙종 29년(1703)에는 角北面의 湧泉寺에서 『琵琶山湧泉寺古記』가 開板되었다. 본문은 25장 분량의 1책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琵琶山湧泉寺古記>, <包山二聖>, <湧泉誌>, <事蹟後跋>이다. 각각의 판심에는 <事跡>, <遺事>, <誌>로 제목을 달리 새겼으며, <事蹟後跋> 부분은 판심제가 없다. 별도의 간기를 새기지는 않았으나, 본문의 첫부분인 <湧泉寺古蹟記>를 金鎭奎(1658-1716)가 작성한 시기⁸⁵⁾와 <湧泉誌>를 쓴 行珪의 지문 작성 시점⁸⁶⁾으로 비정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용천사에는 『事蹟』을 새긴 판목 낙질 2판이 소장⁸⁷⁾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또한 숙종 44년(1718)에는 운문사 사적으로 『淸道郡東虎踞山雲門寺事蹟』이 重錄⁸⁸⁾되었다. 이 책은 승려 彩軒이 작성하여 운문사 경내에서 판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말 기록에 의하면, 간행은 祖鑑, 天洽이 주도하였고, 執綱은 敬寬, 書記 順謙, 別座 雪坦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판을 새긴 것은 印聰 등 3인이 맡아 완성하였다.

84)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307.

85) 『琵琶山湧泉寺古記』 <記>. ‘壬午(1702)菊秋嘉善大夫吏曹恭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金鎭奎記’.

86) 『琵琶山湧泉寺古記』 <誌>. ‘康熙(1703)癸未三月日行珪識’.

87)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296.

88) 『淸道郡東虎踞山雲門寺事蹟』 <刊記>.

다만, 현재로서는 간기에서 밝힌 승려 彩軒이 머물면서, 사적을 작성한 靑蓮社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靑蓮社에서 사적을 작성한 뒤, 운문사에서 판을 새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靑蓮社에서 편찬과 더불어 판각과 인출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사찰의 위치는 동화사의 말사로 청도와 달성군 가창의 인접지에 있던 靑蓮庵⁸⁹⁾의 가능성이 대두된다. 또한 磧川寺의 경내에 靑蓮庵이 있었으므로, 이 곳 또한 간행 장소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존본은 <事蹟>에 이어서 같은 시기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雲門寺佛糧位畱秩>이 합철되어 있다.

사적을 간행한 뒤 운문사에서는 영조 22년(1746) 4월에 『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大悲心陀羅尼經』開刊⁹⁰⁾되었다. 책의 서문은 懷瓊이 '乾隆丙寅(1746) 孟夏'에 작성하였고, 권말의 간기에 이어, 간행에 참여한 이들을 밝혔다. 승려 智印의 주관하여, 대시주 6명, 시주 21명, 삼강은 靑雲과 義堪, 교정 宇觀, 書寫는 金德範 등이 담당하여 판각업무를 마무리하였다. 일부 목록에는 운문사판 『千手經』의 간기를 정조 22년(1798)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1746) 7월 운문사에서는 『六經合部』가 開刊⁹¹⁾되기도 하였다. 전존본은 <六經> 가운데 『金剛般若波羅密經』만을 제본한 것으로, 앞서 4월에 간행된 『千手經』과 마찬가지로 판각의 전체 주관은 승려 智印이 맡았다. 그리고 持事 得珠, 三補 快禪이 담당하여, 대시주 1명, 화주 1명, 별좌 1명, 공양주 1명이 분담하고, 판을 새긴 이로 黃連善 외 3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뜸하던 지역 사찰의 출판 활동은 哲宗 12년(1861) 적천사에서 재개되었다. 이 해(1861) 봄에 사찰에서는 『佛說天地八陽神呪經』이 開板⁹²⁾되었고, 同寺에서 같은 해(1861)에 언해본으로 『불설턴디팔랑신주경』이 開刊⁹³⁾되었다. 이 판이 동시에 새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찰에는 아직까지 판목이 남아있다. 현존하는 목판에는 한문본을 새긴 판목의 이면에 언해본이 합

89) 權相老 編, 『韓國寺刹事典(下)』(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4), 438.

90) 『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大悲心陀羅尼經』, <刊記>.

91) 『六經合部』, <刊記>.

92)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刊記>.

93) 『불설턴디팔랑신주경』, <刊記>.

게 새겨져 있다. 즉 사찰에서 한문 및 언해본을 한꺼번에 판각한 사례로 여겨진다.

한편, 20세기 접어들어 운문사의 출판 활동도 끊이지 않았으니, 隆熙 원년(1907)에는 『禪門撮要』가 開刊⁹⁴⁾되었다. 본문에는 휴정의 어록과 저술 가운데서 신문 수행시 필요한 구절만을 가려뽑아서 편찬한 것이다. 상권의 말미에 ‘隆熙元年月日 慶尙北道淸道郡 虎踞山雲門寺開刊’ 새긴 간기와 더불어 하권의 말미에는 ‘隆熙二年七月日 慶尙南道東萊府金井山梵魚寺開刊’이라 명기하였다. 이로 미루어 운문사판이 새겨진 1년 뒤 1908년 부산 梵魚寺에서도 같은 판이 새겨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1919년 운문사에서는 『龍舒增廣淨土文』이 留板⁹⁵⁾되었다. 책의 원저술은 南宋의 王日休가 편찬하였고, 본문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彌陀信仰을 다루었다. 현존 인본은 마지막 권차인 제12권의 말미에 <龍舒直音>을 두었고, 연이어 제5행에 ‘歲在己未十月初吉日高山雲門寺留板’의 간기를 새겼다.

간기에 이어서는 간행에 참여한 이들을 나열되어 있다. 즉, 대시주는 印贊 등 64명이었고, 판을 새기는 것은 張致良, 朴三彩, 信明, 曇花가 맡았다. 그리고 본문은 自淳이 교정을 담당하여 판을 완성하였으며, 그 시기는 己未年인 1919년으로 여겨진다. 전존본은 규장각 및 하버드엔칭 도서관에 각각 완질이 소장되어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청도 지역의 사찰 간행 서적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청도 지역 寺刹版 목록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원	刊年	비고
新菴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책	鳩摩羅什 譯	목판	1476	개인소장
雲門寺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	竹庵 編	목판	1515	동국대
"	誠初心學人文	1책	知訥 述	목판	1588	적천사
"	蒙山和尚法語略錄	1책	德異 著	목판	1588	동국대
"	緇門警訓	1책	如奩 撰	목판	1588	운문사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2권 2책	宗密 疏	목판	1588	동국대
"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1책	知訥 撰	목판	1588	국중
水巖寺	佛說阿彌陀經	1책	鳩摩羅什 譯	목판	1631	원각사

94) 『禪門撮要』 <刊記>.

95) 『龍舒增廣淨土文』 <刊記>.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원	刊年	비고
"	念佛作法	1책	·	목관	1631	원각사
"	妙法蓮華經	1권 1책	鳩摩羅什 譯	목관	1631	동국대
"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	·	목관	1631	金戊祚 藏
"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	·	목관	1631	성암, 기림사
"	預修薦王通儀	1책	六和 撰	목관	1632	영남대
"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	1책	大愚 集述	목관	1632	영남대
"	佛說大目連經	1책	法天 譯	목관	1654	개인소장
雲門寺	佛家日用食時默言作法	1책	就賢 編	목관	1659	동국대
磧川寺	妙法蓮華經(診解)	영본1책	鳩摩羅什 譯	목관	1672	개인소장
"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책	鳩摩羅什 譯	목관	1680	적천사
"	妙法蓮華經	영본1책	鳩摩羅什 譯	목관	1684	적천사(관목)
磧川寺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1책	就賢 編	목관	17세기	계명대
湧泉寺	琵琶山湧泉寺古記	1책	·	목관	1703	湧泉寺
雲門寺	淸道郡東虎踞山雲門寺事蹟	1책	彩軒 重錄	목관	1718	계명대, 고려대
"	雲門寺佛糧位畚秩	1책	·	목관	1718	계명대
"	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大悲心陀羅尼經	1책	伽梵達磨 譯	목관	1746	고려대,국중
"	六經合部	1책	·	목관	1746	국중
"	佛說天地八陽神呪經	1책	義淨 譯	목관	1861	계명대
"	불설턴디팔랑신주경	1책	·	목관	1861	사찰 관목
雲門寺	禪門撮要	2권 2책	休靜 編	목관	1907	규장각
"	龍舒增廣淨土文	12권3책	王日休 撰	목관	1919	하버드 엔칭

5.1.3 書院 및 齋舍版

청도 지역에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중종 37년(1542) 순흥의 白雲洞書院이 세워지고 사액된 이후의 일이다. 명종 5년(1550) 白雲洞書院이 紹修書院으로 사액된 것을 계기로, 영남 일대에서는 많은 서원들이 생겨났다. 물론, 이전 시기에도 서원의 전신이 없지 않았으며, 齋舍나 祠宇의 형태로 선현 배향과 일부에서 강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청도의 紫溪書院이 서원으로 승격된 것은 소수서원이 사액된 뒤, 선조 9년(1576)의 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원이 되기 이전에 紫溪祠라는 전신이 있었고,

紫溪祠는 중종 13년(1518)에 金駟孫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자계서원으로 사액을 받은 뒤에도 지역에서는 한동안 紫川書院이라는 명칭도 함께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계서원이 사액받은 것을 기점으로 청도 지역에서는 많은 서원과 齋舍들이 건립되었다. 선조 10년(1577)에 창건된 仙巖書院을 비롯하여 南岡書院, 芝山書院, 琴湖書院 등 현재까지 남아있는 서원도 10여 곳이 넘는다.

이러한 서원 및 齋舍는 유림 활동의 근거지였으며, 또한 이 공간에서는 유생들의 필요에 따른 서적의 간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최초의 사례는 자계서원 이전 紫溪祠에서 중종 14년(1519)에 새겨진 『濯纓先生文集』의 출판⁹⁶⁾이다. 하지만 이 때 간행된 판본은 현전하지 않고, 그 뒤로 인조 9년(1631) 겨울에 紫川書院에서 문집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권말의 4행에 걸쳐 篆書 大字로 ‘崇禎四年辛未冬清道紫川書院刊’의 간기를 새겨 두었다. 간기에 밝힌 ‘紫川書院’은 ‘紫溪書院’으로 여겨지고, 선조 조에 사액된 이후에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紫川書院으로 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濯纓集』은 17세기 중엽부터 20세기까지 확인된 판본과 기록만으로도 6차례의 후속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 중 청도 지역 간기를 명시한 것은 순조 27년(1827)본이다. 하지만 송시열이 서문을 작성한 현종 9년(1668)본을 비롯한 나머지 간본들도 청도에서 개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세기 접어들어 청도 角北面의 南岡書院에서는 『密城朴氏世譜』가 목활자로 간행⁹⁷⁾되었다. 권두의 서문은 후손 朴致潤이 작성하였고, 권말에는 6행에 걸쳐 大字로 ‘歲戊申六 / 月日南岡 / 書堂印刊’의 간기를 새겨두었다.

부언컨대 南岡書院은 중종 32(1537)에 창건되어 朴漢柱(1459-1504) 선생을 배향하였으며, 고종 5년(1868)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 현재는 南岡齋되어 강당과 庫舍가 남아있다.

또한 고종 4년(1867)에는 임진왜란 시 청도에서 활약한 朴慶新(1560-1626)의 父子와 형제 등 밀양박씨 일가 14인의 倡義 사적을 기록한 『十四義士錄』이 목활

96) 『濯纓先生年譜』 하권 제31장.

97) 『密城朴氏世譜』 <刊記>.

자로 간행되었다. 본문은 주로 박씨가문의 <忠義錄>과 박경신 등의 문집과 遺稿, 實紀를 수록하였다. 권두의 姜時永이 쓴 서문에는 책의 간행 경위⁹⁸⁾를 밝히고 있다. 즉, 청도의 박씨 가문에서 많은 의병장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여 후손 朴星默(1811-1871)이 문중의 후원과 협력을 얻어 仙巖書院에서 간행하였다. 권말에는 朴星默과 柳厚祚(1798-1876)의 발문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 새긴 판목은 현재까지 청도 금천면의 선암서원 내에 206판이 온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한편, 20세기 접어들어 1909년에는 청도의 德泉齋에서 『梅竹軒先生文集』이 간행되었다. 권수에는 당시 정통 유학자로 후학매진에 여념이 없던 田愚(1841-1922)의 서문이 있어 이 책의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다. 즉 성삼문의 문집은 간행된 지 수십년이 지나 그의 후손인 成周英, 成燦永 등이 유고를 중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에 따라 尹裕後가 소장한 책을 저본으로 하여 朝乘, 野史 및 제현의 글을 추가하여 새롭게 편차하였다. 결국 4권에 달하는 분량으로 글이 모아졌으니, 金容禧 등의 도움으로 1909년 덕천재에서 목판으로 간행⁹⁹⁾하였다. 德泉齋는 成璣運(1877-1954)의 서재로 1922년 『艮齋先生文集』의 刊役이 도모¹⁰⁰⁾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1930년에는 朴廷兌(1841-1886)의 『喜齋文集』이 그의 아들 朴允默에 의하여 간행¹⁰¹⁾되었다. 아버지 박정태는 청도에 머물면서 벼슬은 하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만 전력하였고, 아들 박윤묵과 함께 금천면 일대에 세거하였다. 책의 권두에는 曺兢燮(1873-1933)의 서문이 있고, 권말 간기에는 1930년 錦川面 黃硯齋에서 판각되었음을 밝혔다. 간행이 이루어진 황연재는 密城朴氏 朴河淡(1479-1560)의 증손인 朴珪 선생의 재사로 현재까지 금천면에 건물이 남아있다.

『喜齋文集』 간행 후 5년 뒤인 1935년 선암서원에서는 朴翊(1332-1398)의 문집인 『松隱先生文集』이 중간¹⁰²⁾되었다. 이 문집은 청도판에 앞서 憲宗 3년(1837)

98) 『十四義士錄』 <序>.

99) 『梅竹軒先生文集』 <跋>.

100) 『艮齋先生文集』 <年譜>.

101) 『喜齋文集』 <刊記>.

102) 『松隱先生文集』 1837년본 <刊記>.

洪命周와 趙斗淳이 서문을 쓰고, 李家淳의 발문을 붙여 목활자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청도 간본은 1837년 간행된 목활자본의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부록을 추가하여 청도의 선암서원에서 목판으로 간행¹⁰³⁾한 판본이다. 당시 문집의 간행은 朴翊의 후손인 密陽 朴氏 朴在時가 주도하였다.

이 책의 권제3의 말미에는 ‘乙亥重刊 / 仙巖藏板’이라는 간기가 4행에 걸쳐大字로 새겨져 있다. 이 문집에 대하여 여러 목록상 간행지가 밝혀져 있지 않고, 심지어 지역명을 ‘仙巖’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부연컨대 간기상 ‘仙巖’은 청도의 선암서원이고, 현재까지 문집을 새긴 판목이 서원내에 빠짐없이 남아¹⁰⁴⁾있으므로, 이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서술한 청도 지역 서원 및 齋舍 간행 서적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청도 지역 書院 및 齋舍版 목록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원	刊年	비고
紫溪祠	濯纓先生文集	·	金駟孫 著	목판	1519	濯纓年譜
紫川書院	濯纓先生文集	4권 2책	金駟孫 著	목판	1631	천리대, 문천각
紫溪書院	濯纓先生文集	7권 3책	金駟孫 著	목판	1827	연세대
仙巖書院	十四義士錄	6권 3책	朴星默 編	목활자	1867	규장각, 국중
南岡書堂	密城朴氏世譜	10권9책	朴致潤 等編	목활자	1908	계명대
德泉齋	梅竹軒先生文集	4권 2책	成三閔 著	목판	1909	규장각
黃硯齋	喜齋文集	5권 1책	朴廷兌 著	목판	1930	장서각
仙巖書院	松隱先生文集	3권 1책	朴翊 著	목판	1935	국중, 성균관대

5.1.4 私家版

관청이나 사찰 또는 서원의 출판 활동과 더불어 청도 지역 私家에서도 선대의 문집이나 遺稿類의 판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가관의 출판은 시기적으로는 주로 18세기 이후에 확인된다.

103) 『松隱先生文集』 1935년본 <序文> 및 <刊記>.

104)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同院, 2007), 668-669.

고종 3년(1899)에는 조선 후기 문신 朴太古(1656-1704)의 『景陽齋文集』이 간행되었다. 권수에 나타난 宋秉璿(1836-1905)의 서문에 따르면, 박태고의 7대손 朴永坤(1848-1926)에 의하여 청도에서 간행¹⁰⁵⁾이 도모되었다. 권수에는 송병선의 서문과 정조 23년(1799) 3대손 朴重杔이 영천 紫陽書堂에서 작성한 서문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책의 간행 시점은 권말의 朴致章의 지문이 작성된 시점인 고종 3년(1899)으로 여겨진다.

같은 해(1899)에는 조선 중기 활동하였던 박하징(1484-1566)의 『瓶齋先生文集』이 그의 12대손인 朴聲默에 의하여 청도에서 간행¹⁰⁶⁾되었다. 권수에는 瓶齋의 11세손 朴鎭德(1820-1867)이 철종 5년(1857)에 작성한 서문과 許傳(1797-1886)의 서문이 있고, 권말의 識는 고종 8년(1871)에 柳疇陸(1813-1872)가 썼다. 이로 인해 여러 목록상 『瓶齋集』의 간행 시기가 고종 8년(1871)로 기재되어있으나, 이 판본의 본문 내용 중에는 <守口齋實記>와 <書明洞實記後>가 모두 광무 3년(1899)에 찬술되었다. 따라서 이는 목록상의 오류로 여겨지고, 문집의 간행 시기는 1899년 이후가 되겠으나, 이 해(1899)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세기 접어들어 朴時默(1814-1875)의 시문집인 『雲岡集』이 그의 아들 朴在馨(1838-1900)에 의하여 판각¹⁰⁷⁾되었다. 권두에는 金道和(1825-1912)의 서문을 새겼다. 발문에는 부친의 유집을 加刪하여 3책으로 編刊하니, 후손으로 하여금 선군의 知德을 남기고자 판을 새기게 되었다는 간행 경위를 밝혔다. 다만, 판각의 시점에 대한 기록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박재형의 생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19세기 이전판으로 여겨진다.

이로부터 얼마 뒤인 1906년에는 청도 勒坪에서 『東洲先生逸稿』가 刊板되었다. 東洲 成悌元(1459-1504)의 시문집으로, 권두에 宋秉璿(1836-1906)이 쓴 서문이 있다. 서문 기록에 따르면 成悌元의 문집이 병란으로 유실되었던 바, 후손 成璣運이 원고를 수집하여 간행¹⁰⁸⁾한 경위를 밝혔다. 권말에는 宋炳俊이 쓴 발문

105) 『景陽齋文集』 <序>.

106) 『瓶齋先生文集』 <識>.

107) 『雲岡集』 <跋>.

108) 『東洲先生逸稿』 <序>.

과 출판 사항으로 ‘上四十三年丙午淸道勒坪刊板’이라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 판이 새겨진 勒坪은 지금의 청도읍 伊西面 九羅里 지역의 별칭으로, 선대의 어느 장군이 뒷산에 말안장을 묻었다는 설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한편, 1920년 청도의 사가에서 南孝溫(1454-1492)의 후손 南相圭에 의하여 『秋江先生文集』이 관각¹⁰⁹⁾되었다. 권말의 발문에 의하면, 남효온의 문집은 간행된 지 200여 년이 지나 그 글을 구해보기가 힘들었다. 이에 숙종 3년(1677)에 兪枋이 중간한 판본을 대구에서 구하여, 이를 저본으로 하여 자신이 기거하는 新安에서 새기게 되었음을 밝혔다. 남상규의 발문에 이어 2행을 띄우고 ‘辛酉秋淸道新安刊板’를 새겨두었다. 이상과 같이 청도 지역에서 간행된 사가판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청도 지역 私家版 목록

간행자	서명	책수	편저자	판원	刊年	비고
朴永坤	景陽齋文集	4권 2책	朴太古 著	목활자	1899	국중, 계명대
朴聲默	瓶齋先生文集	4권 1책	朴河澄 著	목판	[1899]	국중
朴在馨	雲岡集	7권 3책	朴時默 著	목판	19세기말	국학진흥원, 국중
成璣運	東洲先生逸稿	1권 1책	成悌元 著	목판	1906	규장각
南相圭	秋江先生文集	8권 5책	南孝溫 著	목판	1921	규장각

5.1.5 鄕校 및 樓亭版

서원과 더불어 지역에 설립된 향교와 누정 또한 선현들을 모시기도 하고, 유교 교육과 유생들의 강학 및 학문 교류를 이루던 공간이었다. 청도에서는 일찍이 조선 초기에 청도 향교가 설립되었고, 누정에 대한 기록은 주로 17세기 이후 확인되고 있다. 지역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누정수도 30개소가 넘어선다.

이러한 향교와 누정에서도 일찍부터 출판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실물로 확인되는 인본은 근세의 것들이다. 즉, 20세기 초 청도 향교에서는 『淸道鄕案正

109) 『秋江先生文集』 <刊記>.

名舊錄」이 간행¹¹⁰⁾되었다.

본문은 모두 청도 지역 재지사족의 명단을 수록한 儒案으로, 「正名錄」과 「正名舊錄」이 합철되어 있다. 이에 수록된 인물들을 일람하면, 密陽 朴氏가 많이 등재되어 있어서 지역에서는 주도적인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載寧 李氏와 鐵城李氏도 대표적인 청도 士族 가운데 하나였다. 청도 향교에는 간행의 저본이 된 「正名錄」과 「正名舊錄」 필사본이 남아있다.¹¹¹⁾

또한 누정의 출판 사실로 1925년 雲岡 朴時默(1814-1875)이 세운 정자인 萬和亭에서는 「進溪文集」이 간행¹¹²⁾되었다. 이 문집은 운강 고택에 머물면서 만화정을 지은 朴時默의 아들인 朴在馨(1838-1900)의 시문집이다. 「進溪文集」은 朴在馨의 아들 朴淳炳이 편찬하여 간행하였으며, 朴淳炳은 문집 간행에 앞서 운강고택을 중수하기도 하였다. 만화정은 청도 錦川面에 운강 고택과 더불어 현재까지 남아있다. 문집을 새긴 판목 또한 문중 후손들에 의하여 관리되었다가,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전¹¹³⁾되기도 하였다.

<표 8> 청도 지역 鄉校 및 樓亭版 목록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원	刊年	비고
淸道鄉校	淸道鄉案正名舊錄	1책	淸道鄉校 編	목활자	1911	국중
萬和亭	進溪文集	9권 4책	朴淳炳 編	목판	1925	영남대, 국중

5.1.6 기타

그 밖에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청도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 중기의 문신 潘佑亨의 문집인 「玉溪先生文集」이 전한다. 문집에는 간기나 구체적인 인출 장소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종 18년(1881)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간행 실무는 저자

110) 「淸道鄉案正名錄」 <刊記>.

11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慶北鄉校誌」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690.

112) 「進溪文集」 <刊記>.

113)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同院, 2007), 588.

의 문인과 후손 潘錫中이 주도하여 이루어졌으며, 청도 지역 인본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종 12년(1875)에 朴河澹(1497-1560)의 11대손 朴廷賢에 의하여 5권 2책으로 간행된 『逍遙堂逸稿』와 金大有(1479-1551)의 12대손 金榮基가 편집하여 목활자로 간행한 2권 1책의 『三足堂文集』 또한 지역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두 문집에서는 간행지에 대한 기록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각각 紫溪書院과 仙巖書院에 배향되었다. 또한 간행을 주도한 후손 朴廷賢과 金榮基 모두 지역에서 기거하였기 때문에 청도 지역 간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간기나 구체적인 인출 장소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청도 간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밖에 청도 지역 문집으로 알려진 판본이 『悌友堂先生文集』, 『道淵先生文集』 등 10여종이 더 남아있다. 이들은 모두 지역 간본으로 여겨지지만, 구체적인 발문이나 인출 기록은 없다. 하지만 한결같이 지역 출신 문사이거나 청도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들이었고, 간행 또한 지역 후손들에 의한 출판 사례로 지역 간행본으로 추정될 뿐이다.

5.2 서지적 특성

이상과 같이 전존하는 청도 지역의 간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다. 그 결과 지역 간행서로 확정지을 수 있는 대상은, 인본으로 간기가 남아있는 52종과 冊板目錄이나 邑誌 등에 책판이 전존하였던 29종을 합하여 모두 81종으로 한정된다. 물론, 81종의 대상 자료 중에는 책판목록에 기재된 책판과 전존본의 중복이 존재하므로, 양자간 동일판이 확실시되는 종수는 제외한 수치이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청도 지역 간행서로 특정 지을 수 있는 81종의 자료를 대상으로, 그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5.2.1 간행 서적의 주제별 분포

청도 지역 간행서를 임란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사부분류법에 따라 주제별 분포

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2.1.1 임란 전

먼저, 임란 전 지역 간행서는 청도 관관으로 15세기 초에 간행된 『春秋經左氏傳句解』를 위시하여 儒家書, 小學類 등 다양한 주제의 간본들이 출판되었다. 이들의 주제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청도 지역에서 간행된 임란 전 간본의 주제별 분포 (단위: 種)

구분		종수(비율)	구분		종수(비율)
經	禮類	1(5.3%)	子	釋家類	7(36.8%)
	小學類	4(21.6%)		儒家類	2(10.6%)
	春秋類	1(5.3%)		합계	9(47.4%)
	합계	6(31.6%)			
史	編年類	1(5.3%)	集	別集類	2(10.6%)
	傳記類	1(5.3%)		합계	2(10.6%)
	합계	2(10.6%)			

이상의 표와 같이 임란 전에 간행된 서적의 전체 종수는 모두 19종이다. 19종의 간행서 중에는 단연 운문사의 불서 간행으로 대변되는 釋家類와 문집류와 소학류의 출판이 두드러진다. 또한 이 시기 사찰 간행 불서의 경우 禮懺部와 禪宗類 서적이 비중있게 출판되어서 당시 지역 사찰의 성격을 짐작케 한다.

요컨대, 임란 전 간행된 청도 지역의 출판에는 청도 군수 주도의 韻書와 蒙求書의 간행, 그리고 지역 군수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서원의 문집 개관,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집중된 운문사의 활발한 불서 판각 활동이 있었다.

5.2.1.2 임란 후

현존본 또는 책판목록 등으로 확인된 임란 후의 지역 간행서로는 62종이 집계

된다. 이들의 주제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청도 지역에서 간행된 임란 후 간본의 주제별 분포

(단위: 種)

구분		종수(비율)	구분		종수(비율)
經	小學類	4(6.5%)	子	儒家類	2(3.2%)
	詩類	3(4.8%)		藝術類	1(1.6%)
	禮類	1(1.6%)		釋家類	22(35.5%)
	합계	8(12.9%)		합계	25(40.3%)
史	地理類	2(3.2%)	集	別集類	21(33.9%)
	別史類	2(3.2%)		總集類	1(1.6%)
	傳記類	1(1.6%)		합계	22(35.5%)
	系譜類	1(1.6%)			
	地理類	1(1.6%)			
	합계	7(11.3%)			

이와 같이 임란 후 간행된 서적은 子部和 集部の 비중이 편향되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단일 類目으로는 특히 석가류와 별집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임란 전부터 꾸준히 이어온 운문사의 출판 활동은 20세기까지 지속되었고, 여기에 17세기부터 水巖寺와 磧川寺의 불경 간행 사업이 가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 간행서의 성격 또한 임란 전의 출판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임란 후 지역 사찰에서는 禮懺部 및 禪宗, 密敎經類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 뿐 아니라 별집류의 경우 조선초기부터 관이나 서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문집 간행이 18세기 이후에는 서원 및 재사, 사가로 확대되었던 탓으로, 자연스레 전존본도 많이 남게 되었다.

그 밖에 지도류와 韻書 및 千字文 등 소학류가 일부 관각되었고, 문학작품으로 詩類와 儒家類, 병풍을 새긴 藝術類 등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부연컨대, 청도 지역은 주변 사찰의 활발한 불서 간행과 조선 후기 유학이 융성하였던 지역 분위기가 있었다. 이로 인해 불서류와 문집류의 간행 활동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 출판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특수성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처럼 18세기 이후 집중되었던 문중이나 사가의 문집류 출판은 비단 정도 뿐 아니라 예천, 의성, 안동, 상주 등 유교적 전통을 지닌 영남 지역 출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5.2.2 판각처별 분포

청도 간행 서적의 판각처를 일별할 때, 전체 81종 가운데 29종의 판각처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들 29종 중에는 문집류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므로, 지역의 문중이나 사가에서 개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판각처가 확인된 52종의 지역 간행서 중에는 사찰판이 29종, 관판 8종, 사가판 5종, 서원판 4종, 齋舍版 3종이 남아있다. 이 밖에 향교와 서당, 누정에서 각각 1종씩 판각되었다.

5.2.3 시기 및 판종별 분포

청도 지역에서는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꾸준히 출판활동이 이어졌다. 지역 간행서의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러한 수치상 간격을 밝힌 인본 외에 책판목록에 서명만 수록된 서적의 경우, 책판 목록의 작성 시기로 그 간행 시기를 비정하였다.

<표 11> 청도 지역에서 간행된 간본의 시기별 분포

(단위: 種)

구분 종수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총수	5	14	15	28	9	10
비율	6.2%	17.3%	18.5%	34.6%	11.1%	12.3%
합계	81 종					

이상과 같이 지역 간행서적은 주로 16-18세기 간본이 우세하다. 이 밖에 20세

기 간본도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15세기의 간행 사업은 官의 소학 및 춘추류의 판각으로 대변되고, 운문사에서 이루어진 선종 및 예참류 불서의 간행은 16세기 지역 출판물을 대표한다.

이후 17세기에는 水巖寺와 磻川寺의 불서 간행이 지역 출판에서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하고, 18세기와 20세기에는 문중이나 사가의 선대의 문집 간행이 지역의 출판 활동을 주도하였다.

한편,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의 판종별 분포는 주로 목판에 의한 간행활동이 이루어졌다. 즉, 목판이 77종(95.1%)으로 목활자 4종(4.9%)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사료 및 기록, 또는 전존하는 간본을 통하여 청도 지역에 간행되었거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고문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책판과 인본의 조사를 통해 문헌의 간행 시기와 성격, 간행처와 시기별 분포 등 그 서지적 특징에 대하여도 다루어 보았다.

이 연구는 영남 지역 군단위 출판 문화 활동을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청도 지역의 출판문화 및 그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와 출판이 이루어졌던 배경적 사실을 고찰하였고, 고려시대 이후 청도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 및 유통 기록,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존본을 서지적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 청도 지역 내의 출판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청도 지역에서는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문명이 발달하여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역의 자연 지리적 여건과 맞물려 일찍부터 사람들이 집결하여 문화를 발달시켰던 주변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도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초기까지 가야 문화가 번성하다가, 신라에 흡수된

이후 6세기 진흥왕대를 기점으로 五岬寺가 창건되는 등 지역 불교가 본격적으로 발흥하게 되었다.

이후 주변의 華岳山과 鰲山에는 磧川寺나 湧泉寺 등이 속속 세워졌고, 고려 말 13세기 후반에는 一然의 주된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기록상 이 시기 一然은 운문사의 주지로 머물면서, 인근 湧泉寺를 중수하였다. 또한 청도의 서북 단 비슬산 仁興社에서 『歷代年表』의 간행을 주관하는 등 그가 말년에 이루어낸 『三國遺事』 저술의 기반을 다진 곳이기도 하였다.

한편, 청도군은 11세기 초부터 慶州都護府에 속한 道州로 있었으며, 당시 지역에 속한 경주도호부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서적 간행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간접적인 출판정황은 좀 더 앞선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청도에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문헌 간행 사례는 15세기 초부터 확인되며, 16세기-20세기까지 주제를 불문하고, 다양한 서적의 간행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의 판각 장소는 조선 초기에는 관청의 주도로 이루어지다가, 이후 지역의 사찰과 향교, 서원 및 祠宇, 개인의 사가 출판까지 다양한 장소와 계층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간행 사례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6-17세기 雲門寺와 水巖寺, 磧川寺의 지역 3개 사찰의 집중적인 불서 판각 사업이다. 16세기 초 운문사의 간행 사업을 필두로 시작된 지역 사찰 불서 간행은 청도 출판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15세기부터 淸道官을 중심으로 『纂圖互周周禮』, 『性理大全』, 『言行錄』, 『自治通鑑』 등의 서적을 개판해 내기도 하였으나, 같은 시기 사찰의 출판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18-19세기 지역의 서원이나 齋舍 또는 문중에서는 지역의 유교적 특색을 반영하듯이, 선대의 유고나 문집을 활발하게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20세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상에서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인본을 찾아내고, 관련 기록의 보존을 통해 청도의 출판 문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원전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高麗史」.
- 「朝鮮王朝實錄」.
- 「承政院日記」.
- 「增補文獻備考」.
- 「新增東國輿地勝覽」.
- 「默齋日記」.
- 「眉巖日記」.
- 「慶尙道邑誌」.
- 「嶺南邑誌」.
- 「清道郡邑誌」.
- 「慶尙北道清道郡邑誌」.
- 「鰲山志」.
- 「清道文獻考」.
- 「虎踞山雲門寺事蹟」.

2. 단행본

-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대구: 同會, 1999.
- 慶尙北道史 編纂委員會 編. 「慶尙北道史 上·中·下」. 대구: 同會, 1983.
-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문화재청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대전: 문화재청, 2007.
- 民族文化研究所 編. 『嶺南文集解題』. 경산: 嶺南大學校出版部, 1988.
-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朴洪甲 編著. 『조선시대 淸道와 淸道 사람들』. 청도군: 청도문화원, 2005.
- 사찰문화연구원 편. 『대구 · 경북의 전통사찰 I (전통사찰총서 14)』.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0.
- 釋尾春苐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沈喁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李基白 編著.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서울: 一志社, 1993.
- 李重慶 編著, 李相瞳 譯註. 『譯註 鰲山志』. 청도군: 청도문화원, 2003.
-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9.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文集解題: 嶺南地方編 1 · 2 · 3』. 서울: 景仁文化社, 1983.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慶北鄉校資料集成』.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慶北鄉校誌』.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一冊-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1944.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 東京: 國書刊行會, 1971.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淸道郡 編. 『내고장 전통문화』. 청도군: 청도군, 1981.
- 淸道郡 編. 『청도』. 청도군: 청도군, 1998.

- 淸道郡 編. 『풍요로운 새청도』. 청도군: 청도군, 1997.
- 淸道郡 編. 『淸道誌』. 청도군: 청도군, 1966.
- 淸道郡 編. 『청도문화 길라잡이』. 청도군: 청도문화원, 2005.
- 淸道郡 編. 『淸道郡誌』. 청도군: 淸道郡, 1991.
- 淸道文化院 編. 『청도 운문사』. 청도군: 청도문화원, 1999.
- 淸道郡 編. 『道州誌』. 청도군: 經濟通信慶北支社, 1958.
- 蔡尙植 著.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3.
-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2·3』. 안동: 同院, 2007.
- 韓國人文科學院 編. 『朝鮮時代 私撰邑誌』.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9.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慶尙道』.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 韓國人文科學院 編. 『韓國近代邑誌』.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1.
-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3. 논문

- 김두진. “一然의 생애와 저술.” 『全南史學』 제19집(2002. 12). 175-196.
- 金世基. “청도지역 고대문화의 고고학적 고찰.” 『大邱史學』 71집(2003. 5). 1-37.
- 金永善. “高峰和尙禪要 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4집(1997. 12). 161-212.
-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 金相湔.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김학수. “17세기 초반 永川儒林의 學脈과 張顯光의 臨臯書院 祭享論爭.” 『朝鮮時代 史學報』 제35집(2005. 12). 47-90.
- 南權熙. “東輿備攷의 사찰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6). 97-142.
- 南權熙. “慶州에서 刊行된 書籍研究.” 『新羅文化』 제19집(2001. 8). 195-226.
-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1999. 2). 351-456.

- 박홍갑. “청도 사찬읍지 鰲山志(1673)의 編目과 특징.” 『中央史論』 21집(2005). 192-224.
- 박홍갑. “16세기초 청도지역 사림의 활동.” 『민족문화논총』 제28집(2003. 12). 223-256.
-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제5·6합집(1990. 12). 161-181.
- 배현숙. “朝鮮朝 書堂의 書籍 刊行과 守藏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5집(2006. 12). 5-40.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2009). 87-115.
- 유탉일. “朱子書節要의 편찬 유통과 朴光前의 위치.” 『퇴계학과 한국문화』(2003. 12). 97-133.
- 유탉일. “영남지방 현존목활자와 그 인쇄용구.” 『奎章閣』 제3호(1979. 12). 31-56.
-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301-330.
- 禹貞任.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 허홍식. “한국 불교서의 간행현황과 방향.” 『書誌學報』 제8호(1992. 12). 61-73.